

‘짧은 추석 연휴’ 귀성객 줄고, 해외여행은 늘어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귀성객 작년보다 2.7% 감소, 해외는 8.7% 오를듯 귀성길은 23일 오전·귀경길은 24일 오후 혼잡...정부, 특별교통대책 마련

올 추석 연휴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작년 추석보다 귀성객이 2.7%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해외여행객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늘어 출국자 수는 작년보다 8.2%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9월 21~26일 추석 연휴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짧은 연휴에 귀성객 작년보다는 줄어...정체시간은 줄어든 듯 = 올 추석은 추석 연휴가 지난해 10일에서 5일로 짧아짐에

따라 고향 방문 전후 나들이 차량이 줄어들어 귀성·귀경 모두 총 소요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총 이동인원은 3천664만명으로 예측됐다.

1일 평균 611만명이 이동하고 추석 당일인 24일에는 최대 76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이동인원은 작년 추석 3천766만명보다 2.7% 감소하고, 1일 평균 이동인원은 평시에 비해서는 90.3% 증가하지만 작년

추석(628만명/일) 대비 2.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의 전 구간 1일 평균 교통량은 작년 동기(468만대/일) 대비 2.8% 감소한 455만대로 전망됐다. 최대 1일 교통량은 추석 당일 575만대로 작년 추석(588만대/일)보다 2.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귀성·여행 시에는 추석 연휴 첫날인 23일 오전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6.7%로 가장 높았다.

귀경(귀가) 시에는 추석 당일 오후에 출발하겠다고 응답 비율이 26.3%로 가장 높

았다. 추석 다음날인 25일 오후 출발도 25.6%로 나타나 추석 당일보다 다음날까지 귀경 교통량이 다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에서 귀성은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등으로 작년보다 최대 1시간5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귀경은 대전→서울 3시간 50분, 부산→서울 8시간 20분, 목포→서울 8시간 20분 등 지난해보다 최대 20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추석 연휴 출국하는 해외여행자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다.

올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예상 출국자는 77만7천명으로 추산됐다.

1일 평균 출국자는 12만9천502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8.2%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됐다.

해외여행 예정지는 동남아가 28.8%로 가장 많고 일본(25.5%), 중국(18.3%), 동북아(8.5%) 순으로 전망됐다.

◇ 추석 연휴 불편함 없게...특별교통대책 추진= 정부는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1일 평균 고속버스 1천221회, 철도 39회, 항공기 7편, 여객선 210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한다.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안전 수송체계를 구축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상습 지체 구간 우회도로 지정 등을 통해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 국토부·한국도로공사 등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공중파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교통혼잡 상황과 주요 우회도로, 최적 출발 시간 등 다양한 교통정보가 제공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폰 로드플러스 인터넷 용량을 1천500MB(시간당 33만 명 동시접속)에서 1천950MB로 증설해 시간당 42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정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89개 구간(994.9km)과 국도 6개 구간(107.0km)에는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도로전광판과 안내표지판을 통해 우회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

추석 전·후 3일간(23~25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뺐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연휴 기간 여성들이 안심하고 휴게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카메라 단속도 벌인다.

/연합뉴스

‘발아현미식초’ 건강식품 자리매김

헤드림식품, 방부제·색소 등 없이 전통방식 고집

담양창평면에 소재한 ‘헤드림식품’에서 만든 발아현미식초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미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는 현미와 식초의 장점이 고루 섞인 건강음료로,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웰에이징 세대 사이에서는 이미 매일 차처럼 즐겨 마시는 음료가 되고 있다.

발아현미에는 식이섬유가 백미의 10배 이상 함유돼 있어 장을 청결하게 해주며, 배변 횟수를 늘려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곡물이 싹을 틔우게 되면 씨앗상태일 때와 달리 여러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른 영양소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현미는 싹이 나면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물질, 라이신, GABA 등이 풍부해져 뇌신경, 두뇌활동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발아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변하면서 식이섬유의 함량도 증가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성인병 예방과 해독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탄수화물 증독을 일으켜 각종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되는 백미 대신 현미를 먹자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식초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체내에서 디톡스 효과를 발휘해 주는데, 발아현미를 발효해 만든 식초는 미네랄, 아미노산이 더욱 풍부해진다.

발효식초는 노벨상을 3회나 수상해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핀란드의 바르타네 박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소화, 흡수돼 기운과 활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식초의 성분인 오기자로 초산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1945년 식초연구로는 첫 번째 노벨 생리의학을 수상했다.

영국의 크레브스 박사와 미국의 리프먼 박사는 식초가 피로 요소인 유산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해소시키는 일을 도와주며, 식초는 우리의 병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면서 1953년 노벨 생리의학을 수상했다.

미국의 브루호 박사와 독일의 리넨 박사는 식초의 주 성분인 초산이 부신 피질호르몬을 만들어 내는데, 이 호르몬은 현대인의 문명병의 주요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내 1964년 노벨 생리의학을 수상했다.

이와 같이 자연발효식초와 관련된 연구업적으로 식초가 인류 건강에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헤드림식품은 “헤드림식품에서 만든 발효식초는 방부제, 색소, 감미료 주정을 사용하지 않은 전통발효 식초로 꾸준히 복용할수록 효능을 체험할 수 있다”며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상쾌하고 좋은 몸과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림식품 발효식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061-383-8757로 문의하면 된다.

/강상구 기자 rkdtkdrn0913@



전남지방우정청, 추석 우편물 특별소통

28일까지 소포 우편물 337만개 소통 예상

1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스킨케어에서는 가을 시즌을 맞아 클래식한 패션에 어울리는 다양한 가을 스카프를 대거 선보이고 있다. 스카프는 단순한 목도리 역할에서 벗어나 넓게 펴면 케이프나 숄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며, 핸드백 손잡이 연출과 같은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특히, 이번 추석 특별소통기간 중 소포 우편물은 지난해보다 9.8% 증가한 337만 개가 소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에서는 600여 명의 인력과 300여 대의 차량을 추가로 투입하여 우편물이 적

기에 소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소통으로 고객의 소중한 우편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우체국은 22일까지 배달을 실시하며, 추석 명절 이전에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20일 이전에 발송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중 기자 dj2891@



전남도민일보
네트워크 제휴사

세상을 읽는 바른 신문

전라도일보 | 미디어전남 | NGTV News Group | KJA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 경기도민일보 | 경북도민일보 | 제주도민일보 | 충남도민일보